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9길 14
H.P - 010.3847.4415
TEL - 070.8639.4415

동화로 보는 필리핀 이야기



올리볼리 가족동화
'원숭이와 거북이'



올리블리 가족동화
'원숭이와 거북이'

원작 호세 리살 / 각색 강민기

어느 날 거북이와 원숭이가 물결치는 강 한 가운데 떠다니는 바나나 나무를 발견했어요.

거북이 저~기 떠 있는게 뭐야?

원숭이 바나나 나무 같은데~ 건져내자!

넓은 초록색 잎과 뿌리가 달린 튼튼한 나무였어요. 폭풍에 뽑힌 것처럼 보였지요.
거북이와 원숭이는 나무를 강가로 가져왔어요.

거북이 나무를 반으로 나누자, 그리고 각각 심는거야

원숭이 그래, 내가 나무 윗부분을 가져갈게

원숭이는 잎이 달린 윗부분이 더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북이 그럼 내가 아랫부분을 가질게

힘이 약한 거북이는 보기 흉한 아랫부분을 가졌어요.



정수현

모아스토리 동화책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동화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필리핀이 어디일까요?

서태평양 가운데 있는 7,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이에요. 대부분의 섬은 이름 없는 암초이거나 산호초이고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880개 정도로 루손 섬과 민다나오 섬이 가장 크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연인 케이프존슨과 엠덴 해연이 있다. 1946년 미국에서 독립했구요, 농업이 주산업으로 설탕·파인애플·마닐라삼·코프라·연초가 5대 수출품이라고 해요. 주민은 말레이계로 대부분이 가톨릭교도이고 주요 언어는 필리피노어와 영어를 사용해요. 수도는 마닐라이고, 면적은 29만 9536㎢ 정도예요.



올리볼리 가족동화를 소개합니다!



올리볼리 가족동화

'원숭이와 거북이'

며칠이 지난 뒤에 거북이와 원숭이가 만났어요.

거북이 원숭이야, 네 바나나 나무는 어때?

원숭이 아깝게도 금방 죽어 버렸어. 네 나무는 어때?

거북이 이상하다, 내 나무는 아주 잘 자라. 지금은 잎도 나고 열매도 열렸어
그렇지만 나는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어

원숭이 (간사한 웃음) 호호~ 걱정마. 내가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줄게

거북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그래. 고마워!

그래서 둘은 거북이의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넓고 푸른 잎들 사이에 열린 노랑색 열매를 보자마자 원숭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원숭이 바나나가 많이 열렸네. 하나 먹어봐야지

원숭이는 허겁지겁 바나나를 따먹었어요.



올리블리 가족동화
'원숭이와 거북이'

거북이 원숭아, 나에게도 좀 줘~

거북이가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달라고 했지만 원숭이는 거북이에게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어요.

원숭이 바나나 껍질까지 다 먹어버릴테야!

원숭이는 양쪽 볼에 바나나를 잔뜩 우겨넣은 채 말했어요.

거북이 원숭이 너~!

거북이는 원숭이에게 앙갚음할 생각으로 뽀족한 달팽이집을 바나나 나무 뿌리 주위에 여기저기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코코넛 껍질 밑에 숨어 있었어요.

원숭이 아야야!! 이게 뭐야!!



올리블리 가족동화
'원숭이와 거북이'

나무에서 내려오다 달팽이집을 밟은 원숭이는 발을 다쳤어요.

원숭이 거북이 너 두고보자!

원숭이 거북이 너, 나를 다치게 했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그러우니까 죽는 방법을 네가 선택하도록 해주마.

너를 절구에 넣어 찹을까, 아니면 물 속에 던질까? 어느 쪽이 좋아?

거북이 절구! 절구로 할래! 나는 물에 빠지는게 정말 무서워.

원숭이 오,그래! 정말? 물이 그렇게 무서워? 그럼 너를 물 속에 빠뜨릴 거야!

원숭이는 거북이를 물 속으로 던졌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곧 물 위로 떠올라 해엄을 쳤어요.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간 교활한 원숭이를 비웃었어요.

필리핀 동화 '원숭이와 거북이'를 쓰신 호세 리살 선생님은

필리핀에서 '독립 운동의 아버지'로 불려요.

원래는 의사셨지만 1880년대 필리핀의 독립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필리핀 곳곳에서 호세 리살 선생님을 기념하는 동상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은 호세 리살 선생님을 존경한답니다.